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

최동주**

- I. 서론
- II.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 III. 산업화 과정에 미친 영향
- IV. 결론

I. 서론

1960년대 초반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는 경제성장이 정치권의 생존과 국가안보의 확립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여겨졌다. 이러한 '경제제일주의'의 정책기조는 한국의 세 차례 전투요원 파병결정을 둘러싼 한미 양국간의 협상내용에 잘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참전의 결과는 경제 부문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밖의 다른 결과들은 경제적 여파에 의해 재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쟁이 진행되면서 군사 현대화 등의 안보 공약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던 데 비해, 경제부문에서는 미국이 밀약한 내용들을 약속대로 이행한 결과로, 한국은 예상했던 것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

1991년에 발표된 홍규덕(Hong 1991)의 베트남전을 둘러싼 한미양국의 불평등 동맹관계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은 현대 세계사에서 전쟁은 항상 용역과 재화의 수요를 창출해왔으며, 특히 전후 폐허화된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 본 연구물은 숙명여대의 2000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더불어 두 분 심사자의 지적에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한국전쟁이 제공해주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던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적 동기를 배제한 채 베트남 파병을 추진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참전배경과 결과를 개발지향형 국가(developmental state)¹⁾의 전형적인 신중상주의적 외교행위와 그 영향으로 분석한 최동주(1996)의 논문은 파병 이전의 한미관계와 참전 도중에 진행된 3차 파병과정의 이면합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병 이전부터 가장 중요한 한국정부의 목표는 경제적 이익이었으며, 그러한 목표에 대한 접근은 한미간의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논문중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결과들(Lyman 1970; Naya 1971; The Economist 1968)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0년대 후반에 대부분 발표되었다. 따라서 신뢰도 있는 자료의 분석이 불가능하였고 분석대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총괄적인 참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의 연구들은 한국이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경제, 외교 및 대미관계와 국내정치 구조의 권위주의화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분석한 몇 편의 논문들(J. Kim 1966; Han 1978; U. Kim 1973)은 경제적인 동기가 참전의 주목표가 아니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즉 참전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은 결과이지 참전정책 추진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초강대국이 개입된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인근 국가의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앤드류 로터(Rotter 1987)와 리차드 스티브스(Stubbs 1974)에 의해 발표되었다(Rotter 1987; Stubbs 1974). 로터는 일본과 영국령 말라야가 한국전의 발발에 따른 전쟁특수를 발판

1) 강성(Hard)과 연성(Soft)국가로 구분지어 탈식민국가의 국가형성 과정 상의 차이점을 대비했던 구나 미르달(Gunnar Myrdal 1968)의 주장이 미국위성으로 구분되던 4대 신평업개발국 등 새로운 성격의 후발개도국의 정치경제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영국 University of Sussex의 개발학파(Developmental School)가 제기한 개발지향형 국가(developmental state) 개념을 학계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개념이 '발전국가'라는 개념으로 국내에는 일반적으로 소개되어 왔으나, 원어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필자는 불균형성장전략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사례국들의 경험을 근거로 발전보다는 개발지향이라는 개념을 쓰기로 한다. 이 개념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논의와 개념정의는 Bagchi(2000)을 참조.

으로 고도성장의 기초를 다졌으며, 특히 연합군 참전을 주도한 미국이 자연산 고무와 주석을 세계 선물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말라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영국에게 경제적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브스는 한국전쟁특수가 주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영국이 말라야에서 펼친 전국적인 반계릴라 소탕 작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한국전 특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득이 결국 친영 과도정부의 반공산주의 운동에 유효 적절히 쓰여짐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말레이시아 공산당의 패배를 불렀다는 것이다.²⁾ 그러나 이러한 논문들도 경제적 영향을 외교정책 이행의 포괄적인 결과중 일부의 차원에서 경제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의 베트남 참전과 그 경제적 영향을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해 온 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은 자료의 신뢰도나 분석대상의 범위 측면에서 참전의 경제적 영향을 정확하고 공정히 분석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초기 산업화과정이던 1960년대 중반에 실행된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과 이의 결과는 경제사 뿐 아니라 동아시아 외교사 연구분야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본 주제에 관한 학문적 토의는 제3공화국 정치사, 외교사, 경제발전 관련 연구서적의 몇 쪽만을 차지해왔을 뿐이다.³⁾ 기존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주로 미국 텍사스 오스틴 소재의 존슨 대통령 기념도서관, 보스턴의 케네디 기념 도서관, 워싱턴의 국회 도서관, 정부자료보관소 등에서 1990년대 초반 이후 새로이 일반에게 개방된 외교 기밀문서와 CIA 정보문서, 한미 양국 의회의 회의록으로부터 밝혀진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둘러싸고 전개된 한미간 경제적 대가에 대한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1960년대 한국경제의 산업화 과정에 미친 파병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강대국이 개입된 전쟁에서 물자 공급자로서의 약소국 역할에 대해서는 Trygve Mathisen (1971, Ch.4)

3) 이념적 동질성이 미국중심의 '자유세계'보다 더욱 견고했던 것으로 간주 되어온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동맹체제하의 소련의 괴뢰국으로 간주되었던 쿠바도 이념의 차원이 아닌 자국의 경제위기 관리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개입을 시도했다는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Vanneman외 1976; Bissell 1978; Duner 1982). 발렌타(Jiri Valenta 1978), 더치(William Durch 1976), 바네만과 제임스(Peter Vanneman & Michael James 1976)(Smith 1979) 참조.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당시 한미간에 전개된 파병을 둘러싼 이면합의의 과정과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문서자료들을 근거로 한국의 참전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부문별로 분석한다. 크게 무역 부문과 비무역 부문으로 나누어 소개한 뒤 경제적 이득이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후, III장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 무역 및 산업구조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I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II.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1. 무역 부문: 베트남 특수⁴⁾와 삼각무역

한·미·베트남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미국의 간접적인 대한 경제지원의 약속은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 미국 공식방문 시 존슨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루어졌다. 회담 중 박대통령은 한국 전투병력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확답을 미국 측에 주지 않는 의외의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의 생산능력의 확충을 위해 미국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⁵⁾ 미국도 우방국 원조비용의 긴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무상원조를 통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동맹국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미국 의회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당시의 한 유엔보고서는 196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을 유도한 가장 큰 요인은 “지역 내 수출시장의 시기 적절한 등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베트남 내전에 미국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발생한 막대한 소비시장의 등장이 바로 그 요인

4) ‘특수’(special procurement)라는 개념은 원래 주한미군의 원화지불이 국고에 입금되어 외화수익으로 회계처리 된 액수를 의미한다. 주로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개인적 소비로 발생한 달러화, 병력 및 기지운영을 위해 미 정부에 의해 지불된 달러화, 그리고 미군이 전략적 시설의 구축을 위해 건설등의 용역사업을 한 국내기업에게 지불하여 국고의 외환수익으로 처리된 금융재화를 의미한다.

5) Visit of President Park, Revised Draft Joint Communique, May 16 1965, NSF, Asia and the Pacific, Korea, Park Visit Briefing Book and Briefing Paper, Visit of President Park, “Korean Assistance to Vietnam,” May 13 1965, Box 256, LBJ Library.

이라는 것이다(UN 1967, 13-20). 베트남에서는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달러화의 유입이 급증하여 소비물품 중심의 수입량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수출 판로를 확보 못하고 있던 한국 경제는 대 베트남 수출량이 급증하기 시작한 1965년을 계기로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67년 이후 미국이 베트남정부의 수입정책에 개입, "Buy American"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새로운 수출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전투병력을 파견한 한국은 군수관계물자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1967년 이후에는 소비물자의 수출이 점차 감소한 반면 전쟁관련 물자의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무역 패턴의 변화는 한국의 산업생산능력이 미국이 원하는 물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와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전쟁이 한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당시 한국의 수출구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1〉 파병 전후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지역과 평균 수출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평균수출액(백만 달러)		분포(%)	
	1962-1963	1966-67	1962-63	1966-67
미국	18.2	116.7	25.74	40.95
일본	24.2	75.2	34.23	26.39
아시아 *	20.6	40.2	29.14	14.11
계	70.7	285.0	100.00	100.00

* :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국가들

** 출처: U.N.: Naya (1971).

〈표 2〉 한국의 대 동남아 수출 현황, 1962-66

(단위: 백만 달러)

	1962	1963	1964	1965	1966
총수출액	54.9	86.6	119.5	175.1	249.7
대만	1.4	0.7	2.0	1.9	2.2
필리핀	0.3	2.6	1.2	1.4	0.8
태국	0.4	1.6	2.6	4.3	4.8
말레이시아	0	0	0	0	0.6
베트남	0	1.2	6.3	17.7	23.8

* 출처: 상공회의소(1969)

〈표 3〉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현황, 1961-1972

(단위: 백만 달러)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상업수출	0.07	0.8	12.1	6.3	14.8	13.9	7.3	5.6	12.9	12.8	14.5	12.5
군납	0	0	0	0	2.8	9.9	15.9	32.4	34.2	57.3	21.2	15.0
총액	0.07	0.8	12.1	6.3	17.7	23.8	23.2	38.0	47.1	70.1	35.7	27.5
총수출대비	0.17	1.46	1.39	5.29	9.02	9.55	6.84	7.99	5.86	4.44	2.58	2.77

출처: 한국은행; 한국 중앙정보부(1970)

참전 이전 한국의 수출 대상 지역과 참전 이후의 지역을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아시아지역의 비중이 참전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그러나 〈표 2〉에서 보듯이 지역 내 국가들로의 수출비중은 현상유지 상태이거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 이후 베트남으로의 수출량은 급속히 늘어났다. 1964년에 63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참전직후인 1966년에는 4배에 가까운 2,38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표 4〉 한국의 대미 수출 현황, 1961-75

(단위: 백만 달러, %)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수출 총액	40.9	54.8	86.8	119.1	175.1	250.3	320.2	455.4	622.5	835.2	1,067	1,624	3,225	4,460	5,081
대미 수출	6.9	12.0	24.3	36.6	61.7	95.8	137.4	237.0	315.7	395.2	531.8	759.0	1,021	1,492	1,536
비율	16.3	21.9	28.0	30.7	35.1*	38.3*	42.9*	52.0*	50.7*	47.3*	49.8*	46.7*	31.7	33.5	30.2

*가 표시된 해는 미국이 한국의 수출대상국중 1위에 기록된 연도

** 출처: 한국은행.

베트남전 참전 이후 한국의 대미수출 물량도 〈표 1〉에서와 같이 3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대미 수출량중의 증가 분 중 정확히 어느 정도가 한국의 참전으로 발생한 것인가는 파악이 어렵다. 또한 '한국의 수출증진은 이미 1961년 부터 시작됐다'라는 논리도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전투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한 1965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으며 전쟁이 종결된 1973년까지 대미 수출의 증가추세는 멈추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이나 대만과는 달리 산업기반이 극히 취약했던 한국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쟁특수로 인한 급격한 대미 수출 증가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표 5〉는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이 가장 왕성했던 1965~1969기간 중 1966~1967기간의 주요 대 베트남 수출품목의 구성비와 전체 수출물량에서 이 품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출품목과 대 베트남 수출품목 간에 현격한 구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들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생산품 - 섬유류, 합판, 플라스틱류, 가발 등 -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 베트남 수출품목들은 철강, 기계류, 수송장비 등 비교적 중공업에 기반을 둔 제품들이었다. 철강제품, 수송장비, 화학제품 등의 경우 각각 총 생산량의 94.3%, 51.8%, 40.9%가 베트남으로 수출되었다. 이는 전략적 기간산업 발전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기존의 3공화국 경제정책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시기보다 훨씬 이전임을 반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표 5〉 수출주요 품목이 전체수출과 대 베트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1966-67

	품목	구성 비율		베트남수출/총수출
		대 베트남 수출	총 수출	
총액 (백만달러)		9.7	282.9	3.41%
%		100.0	100.0	
주요 품목 총액대비		87.27	18.60	품목별 베트남수출/총수출*
품목별 비율	농산물	5.19	13.55	1.31%
	식음료	1.70	0.13	44.20%
	인쇄물	1.50	0.16	32.84%
	화학제품	0.53	0.04	40.87%
	철강제품	45.87	1.66	94.29%
	기계류	15.53	1.30	40.77%
	수송장비	9.50	0.63	51.75%
	유리, 석재류	3.91	0.40	32.98%
	비합금철	3.54	0.73	16.53%

* 항목은 해당품목의 베트남 수출물량이 해당품목의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출처: U.N.; Naya(1971)

1967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정부는 베트남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미국내 생산업자들의 한국 특혜정책에 대한 극심한 항의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가장 많은 수의 한국군 병력을 파병한 2차 파병이 1966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한국정부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미국정부는 1967년부터 위의 수출품목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안보관계 특별 보좌관이었던 윌리엄 번디(William Bundy)가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비밀전문에 나타나고 있다.

국내(미국)의 업자들로부터 베트남특수 정책 기조에 대해 심한 반발과 한국정부와의 파병을 둘러싼 '뒷거래'에 관해 심한 의심을 받고 있음. 극동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의 '가격파괴'적인 수출 정책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는 의견이 거의 사실로 인정되고 있음. 현시점부터 한국이 원래의 무역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대사께서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미국제품과

경쟁이 될 수 없게끔 협조해주시 바람...⁶⁾

〈표 6〉 1968년도 대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과 구성비율

	수출액(백만달러)	비율(%)
총액	38.0	100.0
군복, 신발, 칩구류	13.1	34.6
C-Ration	12.7	33.5
시멘트, 건축자재류	2.9	7.6
유리, 산업장식물	1.6	4.3
화학비료	1.3	3.6
맥주, 담배류	1.1	3.0
제초기	0.4	1.2
한약제	0.3	0.9
철강류	0.1	0.3
수송장비	0.1	0.3
기타	4.1	10.8

* 출처: 중앙정보부(1969, 69-70).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한 후, 한국정부는 참전국가로서 대 베트남수출의 당위성을 지닐 수 있는 전쟁관련 물자들로 주요 수출품목을 교체하기 시작했다. 교체된 군납목적의 수출품목들은 주로 한국이 이미 수출을 목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오던 섬유산업 중심의 군수물자와 미국이 한국군에게 보급하던 C-Ration의 대체하기 위한 김치 등의 한국음식을 담은 캔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섬유제품이 수출주력품목이 된 것은 당시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변화였다. 최대의 수출 산업품목이었던 섬유류는 1965년 당시 이미 9천2백만 킬로그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 소비량을 충족시키기도 남는 수준이었다(UN 1967, 30-31). 후술하겠지만 1965년 이후 미국이 대 한국 경제원조에 있어서 농수산 원조(PL-480)의 비율을 집중적으로 늘리기

6) Deptel 1110 (Seoul), Bundy to Poats to Ambassador and Berstein, April 1966, NSF, Korea Vol.III, Box 255, LBJ Library.

시작했는데, 미국내 면화의 과잉생산을 기회로 한국정부는 국내 과다공급이 우려되던 면화를 수출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1966년말 30,000명에 이르게 된 파월 한국군에게 지급되던 부식의 전량이 지방함유량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한국인 입맛에 적합치 않은 미군용 C-Ration이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국군의 전투의욕을 향상하고 성장초기 단계에 있던 캔 산업의 육성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측에 한국음식(특히 김치)이 담긴 부식을 하루에 한 끼 정도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미국은 가격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한 후, 1966년말 한국의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어 1967년에만 1천 백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1966년 11월에 “주식회사 대한식품”이라는 정부출연 식품회사를 설립하여 이듬해 2월 1968년에 외무부장관에 임명된 최영희 예비역 장군을 사장으로 임명,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게끔 하였다.⁷⁾

미국이 한국의 캔 산업의 발전에 적극협력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파월 한국군의 전투의욕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미국이 지급하던 C-Ration보다 가격이 훨씬 낮았던 관계로 재정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다. 둘째, 군사적인 지원보다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한 우방 지원을 선호하던 정책에 부합했으며, 셋째, 한국이 미국 업체들의 압력으로 대 베트남 수출에 있어 중공업품목의 수출을 우선하는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⁸⁾ 따라서 1967년 3월 정일권 국무총리가 미국을 공식 방문했을 당시, 캔공장의 설립에 미국이 적극 후원할 것을 약속 받았으며, 1973년 한국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캔류는 가장 중요한 대 베트남수출품목의 하나가 되었다.

대 베트남 무역으로 발생한 한국의 경제적 이득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총 2억 8천 3백만 달러에 달했다. 그 중 9천 4백만 3천 달러는 상업수출로 인한 것이었다. 총 매출의 3분의 2는 전쟁관련 물자의 수출로 인한 것이었다. 무역부

7) Memo, U.S. Procurement of the Korean Combat Ration, March 1967, NSF., Asia and the Pacific, Korea PM Chung Il-Kwon Visit Papers, Box 256, LBJ Library.

8) Ibid.

문의 경제적 수익이 한국의 수출위주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베트남전을 통해 벌어들인 전체 경제적 이득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표 11> 참조).

2. 비무역 부문: 베트남 진출업체, 민간 노무자, 군인의 송금 등

한미양국은 공식적으로 파월된 한국군은 전원 '자유세계의 수호를 위한 자발적인 지원자들'이라고 밝혔지만, 1964년의 비전투 목적의 공병대 파병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이미 임금에 대한 합의를 본 바 있다. 하지만 정규 전투요원을 파병하기 시작한 1965년 말부터 한국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임금의 20~25%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결국 1966년 7월 2차 전투 병력 파월 직전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표 7>).

<표 7> 파월 한국군 급여 (일당 기준)

계급	1964	1966
병장	\$1.50	\$1.80
상병	\$1.20	\$1.50
일등병	\$1.00	\$1.35
이등병	\$1.00	\$1.25

* 출처: U.S. Congress, Senate(1970, 1572).

<표 8> 파월 한국군의 송금내역, 1965-72

(단위: 백만달러)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총액
급여	1.8	15.5	31.4	31.4	33.9	30.6	32.3	26.8	201.5
사상보상금		1.1	4.6	4.6	10.8	15.2	13.9	12.0	65.3

* 출처: 주월한국군사령부(1974, 1142); 아산사회복지재단(1988, 215); 국사편찬 위원회(1975)

미국측 입장에서는 한국의 파병을 통한 전투지원이 재정절감의 중요 요소였

다. 미국은 자국병력을 파견했을 경우에 비해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지불하고도 경쟁력 있는 병력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기타 장례비용 등도 미군의 경우에 비해서는 막대한 절감 효과가 있었다. 한편 한국군은 미군과 똑같이 PX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며, 국내에서 불과 1달러 60센트의 월급을 지급받던 그들은 평균 40달러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 한국군은 사령부가 직접 군인들의 봉급을 관리, 본국으로 송금시켜 저축률과 외환보유고를 늘려 갔다. 1972년까지 약 2억 달러 이상이 송금되었으며, 그 중 40%는 은행에 저축되었다(국사편찬위 1975, 10권, 539). 한편, <표 8> 에서와 같이 전쟁이 지속되면서 전사나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도 늘어나기 시작하여 1972년까지 한국군에게 약 6천 5백만 달러가 지급되었다.

미국의 또 다른 특혜는 서비스·건설등 분야의 한국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 졌다. 한국업체들은 주로 건설, 토목, 물품수송, 세탁소나 유흥업체 등의 서비스 업종에 주력했는데, 서비스업은 한때 50여개 이상, 건설업체는 최대 12개의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1972년까지 이들 업체들로부터 송금된 외화 총 수입은 2억 3천 8백만 달러에 달했다(<표 9>).

<표 9>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및 서비스업체로부터의 송금내역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서비스업	건설업
1966	8.32(10)	3.30(5)
1967	35.47(25)	14.20(9)
1968	46.06(41)	10.39(12)
1969	55.27(56)	11.54(12)
1970	52.35(48)	10.65(12)
1971	31.98(38)	8.53(11)
1972	9.20(23)	3.10(7)
총액	238.65	61.71

()안의 숫자는 해당년도 진출기업 수

* 출처: 중앙정보부(1969, 71); 국사편찬위원회, 4집(1975, 1139; 아산복지재단(1988, 216).

건설업체들은 1966년 이후 군사기지 구축, 군사적 용도의 건물 건축, 교량

토목공사 등에 주력했다. 1967년 이후 적용된 "Buy American"정책에 의해 한국 업체들은 주로 미국기업들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하였는데, 이들 업체들이 벌어들인 공사대금의 총 송금액은 1972년까지 6천 백만 달러에 달했다. 베트남에서 축적된 한국기업들의 건설·토목기술 경험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중동 등 해외건설사업을 통한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10〉은 위와 같은 업체들에서 근무한 인력의 송금액을 소개하고 있다. 3분의 2 이상의 한국 근로자들이 RMK-BRJ, PAGE, PHILCO, VINNEL 등 외국업체에서 근무했으며, 나머지는 한국계 건설업체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참전 기간 중 베트남에서 근무한 외국인력의 40%를 차지했으며, 봉급과 보상비 등을 합해 1972년까지 약 1억 6천 6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연 7만 명 가까운 이들 근로자들은 동기간의 군인을 제외한 한국출신 해외 근로인력의 63%에 달하는 인원이었다. 군인을 포함한 베트남 진출인력의 송금을 통한 저축률의 향상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귀국 당시 평균 저축액은 대개 5천 달러에서 8천 달러사이를 기록했으며 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여오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S. Kim 1970, 521). 대개가 농촌 출신이었던 연 30만 군인들의 송금으로 발생한 저축도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표 10〉 주월 한국근로자수와 송금내역

	1. 한국기업소속	2. 외국기업소속	1 + 2	송금액	해외근로자 대비
				(백만달러)	주월근로자(%)
1965	0	105	105	확인불가	0.6
1966	2,187	7,834	10,021	9.1	80.1
1967	3,983	8,964	12,947	34.3	64.1
1968	4,284	11,287	15,571	33.6	70.9
1969	3,941	8,678	12,619	43.1	38.8
1970	2,739	3,997	6,736	26.9	12.9
1971	2,672	3,106	5,778	15.3	3.8
1972	857	850	1,707	3.9	0.9
계			25,179	166.2	39.6

*는 연인원.

** 출처: 아산복지재단(1988, 176-182).

3. 베트남 수익의 경제적 영향

<표 11>에서 보듯이 1965~1972기간 동안 위에서 살펴 본 여러 부분의 총 경제적 이득은 10억 3천 6백만 달러에 달한다. 파병 이후 급증한 미국의 무상원조를 포함하지 않은 이 금액은 같은 기간 외환보유고의 29.83%에 이르며 총 GNP의 2.07%에 이른다. 베트남 참전으로 발생한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1966년에 시작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1966~1971기간 동안 일인당 GNP는 약 11.7% 증가했으며 이는 1963~1971기간의 연간 평균 증가율의 두 배에 다다른 것이다 (US Congress 1973, 15).⁹⁾

<표 11>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단위: 백만 달러)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65-'72	%
상업수출	14.8	13.9	7.3	5.6	12.9	12.8	14.5	12.5	94.3	9.1
군납	2.8	9.9	15.9	32.4	34.2	57.3	21.2	15.0	188.8	18.2
무역부문	17.7	23.8	23.2	38.0	47.1	70.1	35.7	27.5	283.1	27.3
군인급여	1.8	15.5	31.4	31.4	33.9	30.6	32.3	26.8	201.5	19.4
근로자송금	--	9.1	34.3	33.6	43.1	26.9	15.3	3.9	166.2	16.0
사상보상금	0	1.1	4.6	4.6	10.8	15.2	13.9	12.0	65.3	6.3
서비스업	0	8.3	35.5	35.5	55.3	52.4	32.0	9.2	238.8	23.1
건설업	0	3.3	14.2	14.2	11.5	10.7	8.5	3.1	61.7	5.9
지급보험금	0	1.1	4.6	4.6	3.8	2.1	1.3	0.7	19.4	1.9
비무역부문	1.8	38.4	123.6	130.7	158.4	137.9	103.3	55.7	752.9	72.7
계	19.5	62.2	146.8	168.7	205.5	207.8	139.0	83.2	1036.0	100

* 출처: <표 1~10>

참전으로 인한 직접수입은 전투병력이 본격적으로 파견되기 시작한 이듬해인 1966년의 6천 2백 2십만 달러에서 계속 급증, 1969년 2억 5백만 달러, 1970년에는 2억 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70%이상의 수입이 비무역 부문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원자재나 반가공품의 수입 등에 자금이 소요되는 수출과는 다르게

9) 그러나 1971년 4분기 부터 엔화의 재평가, 달러화의 절하, 미국 경제의 침체, 20,000명의 미군 철수, '베트남 수입'의 감소, 한미 섬유쿼타 체결, 해외 건설경기의 불황 등에 기인하여 국내 경기도 침체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는 1972년 전반기까지 계속되었으며 GNP실성장률도 1971년 상반기의 15.1%에서 5.7%로 급격히 둔화되었다.

실질 수익의 폭이 크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기여의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행의 외환보유고는 1965년에 1억 3천 8백만 달러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2년에 6억 9천 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대외적인 재정 신용도의 확보로 차관이나 외국인 투자를 유리하게 하였으며, 수출입능력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표 12〉 한국의 경제적 수입이 GNP와 외환보유고에 미친 영향
(단위: 백만달러)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총계/평균
A. 베트남수입	19.5	62.2	146.8	168.7	205.5	207.8	139.0	83.2	1036.0
B. GNP	3,006	3,671	4,274	5,226	6,625	7,834	9,145	10,254	50,035
C. 외환보유고	138	236	347	388	550	584	535	694	3,472
A/B	0.6%	1.8%	3.7%	3.6%	3.5%	3.1%	1.5%	0.8%	2.07%
A/C	11.1%	28.3%	45.3%	48.2%	42.9%	41.2%	26.0%	12.0%	29.83%

* 출처: 경제기획원; 〈표 11〉.

‘베트남 수입’은 국내 산업기반과 소비수요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GNP는 1965년의 30억 달러에서 1972년의 100억 2천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GNP성장률은 참전 이전 7%에서 13%로 증가했다. 일인당 GNP도 1964년 105 달러에서 1973년에는 373 달러로 늘어나 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외화수요의 주 공급원을 무상원조에서 외환보유로 바꾸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III. 산업화 과정에 미친 영향

1. ‘베트남 차관’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기간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참전기간 동안 한국은 직접수입을 제외한 막대한 공공 및 상업차관을 미국과의 ‘베트남 협상’을 통해 도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금의 대부분은 다른 용

도가 아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전략적 기간산업시설의 확충에 집중적으로 활용되었다. 수년간에 걸친 미국과의 파병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목적은 증명되고 있다. 한국은 세 차례의 파병에 대한 대가로 수많은 협상에서 “계획차관(program loans)에 더욱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항상 다른 목적을 위한 차관을 요청하였으며,” 미국대표도 “원조정책을 유연하게 이용하여 계획차관을 파병협상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였다.”¹⁰⁾ 한국군 확보의 책임자였던 맥조지 번디(McGeorge Bundy)는 존슨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

이러한 계획들은 당신이 지난 5월(1965)의 박정희와 가진 회담에서 약속한 1억 5천만 달러 차관에 의해 추진 될 것입니다.... 베트남전의 수행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긴급히 증파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 차관의 조기지급 여부는 한국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박정희에게는 ‘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차관이 한국에 금년 내에 지급될 것을 촉구합니다.¹¹⁾

그러나 한일외교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대가로 한국에 약속한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이 한국의 지도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¹²⁾ 한국정부는 “1억 5천만 달러 외의 거래”를 요구하였다.¹³⁾ 미국은 한국의 참전에 대한 공식적 대가로 1966년 3월에 합의된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를 통해 이러한 한국의 요구를 반영시켰다.¹⁴⁾

10) Memo, M. Bundy to the President, “Subject: Project Loans for Korea,” December 22 1965, NSF., Files of M. Bundy, Non-Committee Memo, Box 15, LBJ Library; Embtel 726 (Seoul), the Vice President to the President, January 1966, NSF., Korea Vol.III, Box 254, LBJ Library; Memo, Bell to Rostow, “Subject: Second Program Loan for Korea,” July 1966, *ibid*.

11) Memo, M. Bundy to the President, *op.cit*.

12) Memo, Ball to the President, “Subject: Development Loan Commitment to Korea,” May 13 1965, NSF., Korea Vol.II, Box 254, LBJ Library.

13) Memo, Bator to M. Bundy, “Subject: Loans to Korea and A Second Korean Division to Vietnam,” December 29 1965, NSF., Korea Vol.III, *ibid*.

14)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91st Congress, 1st & 2nd Session, Washington D.C.: USGPO, 1973) p.1549.

위와 같은 차관의 도입이 시작되면서 한국정부는 외자도입의 단순한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질적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법안을 개정 혹은 신설하기 시작했다. '외자도입 촉진법' '차관에 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및 '장기 결제 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개 법을 1966년 8월 '외자도입법'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외자도입의 효과적인 규제를 도모하였다. 외자도입법은 당시의 외자도입 정책방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불보증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차관도입을 억제하였다. 또한 1967년 11월 경제장관회의는 당시의 일부 불합리한 외자유치책으로 인하여 야기된 대외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고, 불건전한 외자도입기업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외자도입합리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의결, 집행하였다(재무부와 산업은행 1993, 92-93).

<표 13> 한국의 외화유입 현황, 1966-72

(단위: 백만달러, %)

	1962-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66-72
	액수 %								액수 %
공공차관	6.3 7.1	73	106	70	139	115	303	324	1,130 26.4
상업차관	7.1 8.0	110	124	268	410	367	345	326	1,950 45.6
은행용자	-- --	--	--	40	30	25	90	20	205 4.8
외국인투자	13 1.5	14	11	19	13	66	43	61	227 5.3
누계	147 16.6	197	241	397	592	572	781	731	3,512 82.2
미국원조금	739 83.4	103	97	106	107	83	51	5	552 13.0
청구금	-- --	30	30	34	31	25	31	27	211 4.8
총외화도입액	886 100.0	330	368	537	730	680	863	763	4,275 100.0

* 출처: 재무부 외(1993, 110).

1966~1972기간 동안 35억 달러의 외자도입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45.6%에 달하는 19억 달러가 상업차관이였다. 한일외교정상화 및 베트남 참전의 영향으로 60년대 말까지 상업차관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부채부담의 증가로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의 '베트남협상'에 크게 힘입은 공공차관은 11억불을 기록, 총 외자도입액의 26.4%를 차지했다. 공공차관은 주로

발전소 건설과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쓰여졌으며, 상업차관은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등의 전략적 기간산업시설의 확충에 쓰여졌다.

〈표 14〉 공공차관 도입 내역, 1966-72

(단위: 백만달러)

	1962-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66-72 (액수)%	
미국	38	54	71	42	105	86	140	187	685	60.6
일본	--	14	26	17	21	13	102	63	256	22.6
기타	25	5	9	11	13	16	61	74	189	16.8
계	63	73	106	70	139	115	303	424	1,130	100.0

* 출처: 재무부 외(1988, 110).

참전기간 동안 한국이 도입한 공공차관 총액의 60%가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었는데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파병이 이루어진 이듬해이거나 전쟁말기 미국군의 철수후 한국군만 베트남에 외국군으로 주둔하고 있던 1967, 1969, 1971, 1972년도들의 수치가 불규칙하게 급속히 증가한 것은 '베트남 협상'의 결과이다.¹⁵⁾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총 5억 2천 2백 50십만 달러의 '베트남전 관련 공공차관'은 공공차관 총액의 45.5%, 외국인 직접투자액을 합친 총 차관도입액의 16%, 총 외자도입액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의 자금이다. 〈표 15〉에서와 같이 주로 곡물차관(PL-480)이 '베트남협상'에 의해 지급되었으며, 이 자금은 주로 섬유산업 등의 수출 전략산업 부문에 집중 투자되었다.¹⁶⁾ 수출입은행에서 도입한 3

15) Memo, Bell to the President, "Subject: Project Loans for Korea," op.cit.; Memo, Schultze to the President, "Subject: \$12 million Loan to the Korean Restruction Bank," August 3 1966, NSF., Korea Vol.III, Box 255, LBJ Library; Memo of Conversation, Korean Minister of Finance Kim and Rostow, November 1 1966, ibid.; Embtel (Seoul), Porter to SECSTATE, March 4 1968, "Political Situation," MSF., Asia and the Pacific, Korea-Pueblo Incident, Box 259, LBJ Library.

16) Memo, for M. Bundy, December 24 1964, NSF., Vietnam Vol.XXIV, Box 11, LBJ Library; Embtel 4625 (Seoul), AMBSEL to State Dept., "Subject: ROKG PM's Visit: Military Questions," March 9 1967, NSF., Asia and the Pacific, Korea PM Chung Il-Kwon Visit Papers, Box 256, LBJ Library; In the Text of a letter from Johnson

천 2백 50만 달러의 차관은 미국으로부터 산업 원료와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데 쓰여졌다.¹⁷⁾

〈표 15〉 베트남파병 관련 미국공공차관과 추진사업, 1966-72

도입기관	추진사업	차관 제공처	액수(백만달러)	연도
농수산부	농산물 수입	PL-480	415	1968-71
수출입은행	산업원자재 수입	PL	32.5	1966
철도청	디젤기관차 수입	AID&EXIM	25	1966 & 68
서울시	수도시설 확장	ADB	9	1972
한국전력	당인리화력발전소	AID	21	1966
산업은행	중기지원, KIST설립	AID	12	1966
중소기업은행	중기지원	AID	8	1966
총계			522.5	

* 출처: 재무부 외(1988); LBJ 도서관 문서들.

그 외의 차관들은 집중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쓰여졌다. 2천 5백만 달러는 증기기관차를 디젤기관차로 대체하기 위해,¹⁸⁾ 9백만 달러는 서울시 수도 시설 확충, 그리고 2천 백만 달러는 당인리 화력 발전소의 건설에 각각 쓰여졌다. 이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공공차관은 베트남전에서 미국을 위해 “정치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박정희의 “체면”(matter of

to Park in Deptel 3103 (Seoul), AMEMB to SECSTAE, December 23 1967, NSF., Vietnam 5D(3): ROK, Box 91, LBJ Library.

17) Memo, Bell to Rostow, "Subject: Second Program Loan for Korea," July 1 1966, Nsf., Korea Vol.III, Box 255, LBJ Library; Memo, M. Bundy to the President: Sweetner for Another ROK Division in Vietnam," February 3 1966, *ibid.*; Memo, Gaud to M. Bundy, "Subject: FY 1966 Supporting Assistance Program for Korea," February 5 1966, *ibid.*; Embtel 4805 (Seoul), "Subject: PM's Visit-Status of Commitments Related to Second ROK Troop Deployment to Vietnam," March 12 1967, NSF., Asia and the Pacific, Korea: PM Chung Il-Kwon Visit Papers, Box 156, LBJ Library.

18) Memo, Schultze to the President, "Subject: Loan to Korea for Diesel Locomotives," May 28 1966, NSF., Korea Vol.III, Box 255, LBJ Library; 재무부 외(1988).

face)때문에 약속된 시기에 정확히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었다.¹⁹⁾ 한편, 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도입된 2천만 달러의 차관은 한국과학기술의 요람이 된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1966년 개원을 위한 교수 확보와 교육자재 구입에 사용되었다.²⁰⁾

<표 16> 베트남전 관련 미국상업차관과 추진사업, 1966-72

도입기관	추진사업	액수(백만달러)	연도
한국전력	여수원자력발전소 건설	88	1970
한국석유공사	나프타용해공장 건설	47	1967 & 71
호남정유	제2정유공장 건설	45	1967
경인에너지	발전·정유설비 건설	60	1969
총계		240	

* 출처: 재무부 외(1988, 119); LBJ도서관 문서들.

일본 및 유럽국가들로부터의 상업차관이 주로 수출품 생산능력의 확충을 위한 경공업시설 투자에 쓰여진 반면,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베트남 관련 상업차관'은 사회간접자본 및 중화학 공업 등의 기간산업 기반 확충에 투자되었다. 이러한 차관들은 존슨 대통령이 한국군의 증파를 확답 받기 위해 방한했던 1966년 11월에 실무장관의 비공식회담에서 결정되었다. 김정렴 당시 재무장관은 2차 5개년 계획의 추진사안 중 첫째, 300 메가와트 발전용량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둘째, 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차관, 셋째, 가족계획 실천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을 위해 매년 1억불의 상업차관을 제공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거의 모든 요구가 미국 측에 의해 이행되었음을 1966년 11월에 존슨 대통령

19) Memo, Bell to the President, "Subject: Project Loans for Korea," op.cit.

20) Dr. D.F. Hong, "Report to the President: Regarding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in Korea with US Cooperation an Institute for Industrial Technology and Applied Science," August 4 1965m NSF., Korea Vol.II, Box 254, LBJ Library; Memo, Schultze to the President, "Subject: \$12 Million Loan to the Korean Reconstruction Bank (Korean Industrial Bank)," August 3, ibid.

에게 보고된 보고서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²¹⁾

2. 베트남전 관련 곡물원조(PL-480)와 섬유산업의 발전

앞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주 수단으로 곡물원조를 이용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미국 내수시장의 경기부침 여부와 깊이 관련이 있었던 이 정책은 한국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미국 외교정책의 전략적 측면에서 곡물원조 정책은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을 갖는다. 첫째, 쉽게 현찰화되며, 둘째,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으며, 셋째, 외무당국이 임의로 양을 조절하여 여타의 원조정책들과 호환이 가능한 융통성을 갖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Wallerstein 1980, 130).

<표 17> 에서 보듯 참전전(1961-1965)과 참전중(1966-1972) 두 기간을 비교해볼 때, 곡물원조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전체 경제원조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 참전전 기간은 40.2%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참전 기간 동안은 59.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7> 원조총액과 곡물원조액의 비교, 1961-72

(단위: 백만달러)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66-'72
A. PL-480	47.8	60.1	84.5	122.3	82.9	63.5	89.6	105.8	183.4	122.5	115.7	200.7	881.2
B. AID	192.8	245.5	252.3	164.8	176.9	173.2	229.8	197.5	239.7	181.8	185.9	241.4	1449.3
A/B(%)	22.1	24.4	33.4	74.2	46.8	36.6	38.9	53.5	76.5	67.3	62.2	83.1	59.7

* 출처: Krueger(1979).

우리는 왜 한미 양국 모두 곡물원조를 선호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국내 경기의 부침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미국의 곡물원조 선호는 미래 시장의 개척이라는 현실적인 면에서라도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21) Summary Proposal for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November 3 1966, NSF, Korea Vol.III, Box 256, LBJ Library.

정부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국내 농산업계의 저발전을 초래할 수도 있는 원조물품의 지원을 선호한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강력한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추구하던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자, 베트남협상 테이블에서 곡물원조의 품목 중 한국의 수출위주 경제성장 정책에 유리한 제조 원자재의 비율을 늘릴 수 있는 권리가 자연스럽게 부여되었으며, 이는 참전기간 동안 한국 측에 의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면화가 곡물원조 중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수출전략산업인 섬유산업의 성장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Cathie 1989, 107-113).²²⁾

〈표 18〉 PL-480(곡물원조)중 면화와 밀의 비율,
1956-65, 1966-71 두 기간의 비교

연도	면화/PL-480 (%)	밀/PL-480 (%)	계 (천달러)
1956	24.7	75.3	32,955
1957	3.9	96.4	45,522
1958	0.9	99.1	47,896
1959	61.0	39.0	11,436
1960	3.8	96.2	19,913
1961	47.8	52.2	44,926
1962	46.4	53.6	67,308
1963	32.8	67.2	96,787
1964	50.0	50.0	60,985
1965	49.9	50.1	59,537
'56-'65 평균	32.1	67.9	
1966	70.4	29.6	37,951
1967	76.8	23.2	44,378
1968	44.0	56.0	55,027
1969	52.1	47.9	74,830
1970	44.4	55.6	61,703
1971	46.6	53.4	33,651
'66-'71 평균	55.7	44.3	

* 출처: 한국은행

22)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국에 의해 '무상 식량원조'로 불리워 지던 이 원조 프로그램은 '농산물 원조'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표 18>을 살펴보면 참전 이전인 1956~1965 기간 변화가 곡물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1%에 불과했으나, 참전중인 1966~1972 기간에는 55.7%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66, 1967 두 해에는 변화가 곡물원조품목 중 70% 이상을 차지했다. 참전기간 동안 약 1억 8천만 달러 가치의 변화가 무상 지원되었으며, 같은 기간 미국의 경제원조액 5억 5천 2백만 달러의 32.5%가 변화였다. 이렇게 무상 원조된 변화는 한국의 수출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원자재로 공급됨에 따라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수출총액 중 섬유류 수출로 인한 액수가 최대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표 19> 총수출액 대비 섬유수출액, 1961-72

(단위: 백만달러)

연도	A. 섬유류	B. 총수출	A/B(%)
1961	4.1	38.6	10.6
1962	7.6	54.8	13.8
1963	17.6	86.7	20.2
1964	32.7	118.8	27.5
1965	54.5	174.9	31.1
1966	79.6	247.6	32.1
1967	124.5	320.3	38.8
1968	190.3	455.2	41.8
1969	249.3	622.6	40.0
1970	330.2	835.2	39.5
1971	467.5	1,067.6	43.7
1972	660.2	1,632.6	40.4

* 출처: Krueger(1979); Cathie(1979, 173).

3 ‘베트남재벌’의 등장과 특혜성 다각화

박정희 정권은 5.16 쿠데타 직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지름길은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활용, 민간기업을 육성하여 지원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발전여부는 국내의 투자 자금의 분배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었으므로 정부의 간섭과 정책적 유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주종관계 경제적의 정부-기업간의 밀월관계는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었다. 몇 개의 건설, 운송, 섬유산업 분야에서 독점적 대기업들이 새로이 떠올랐으며 이들 ‘베트남재벌’들은 정부의 특혜 속에 비 관련 업종으로의 무분별한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대기업들과 맞먹는 크기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즉 한국 민간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은 외화의 획득 차원 뿐 아니라 신 계층구조의 형성과 전 산업구조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표 20〉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으로 분류한 10대 기업, 1966, 1975, 1986

	1966	1975	1986	주력 업종
1	삼성	삼성	삼성	무역, 전자, 섬유, 보험, 제당, 반도체
2	삼호	LG	현대	건설, 자동차, 조선, 시멘트, 전자
3	삼양	현대	LG	정유, 전자, 무역, 보험, 금융
4	개풍	한진	대우	무역, 조선, 자동차, 전자
5	동아	효성	신경	섬유, 정유, 무역, 화학
6	럭키	쌍용	쌍용	시멘트, 정유, 건설, 무역
7	대한	대우	한진	항공, 해운, 육송, 관광
8	동양	동양맥주	효성	섬유, 무역, 기계
9	화신	동아건설	한화	화학, 식품, 보험, 증권
10	한국가스	신동아	롯데	식품, 유통, 호텔

* 출처: 조동성(1990, 211).

1947년에 정 주영에 의해 설립되어 1960년대 중반까지 교량수리, 도로굴착, 군대 막사 건축, 소형 댐이나 저수지 토목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소규모 군소 건설업체 중의 하나였던 현대는 베트남전 확대에 의한 건설 붐 참여를 계기로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기존의 군사시설 건축 및 토목공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는 베트남 내의 항만 준설공사를 한국정부의 지원 하에 미국 측과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발주 받기 시작하면서, 1969년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의 총 송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실적을 올리게 된다.

〈표 21〉 베트남진출 한국건설업체들의 송금실적, 1966-69

(단위: 천불)

	1966	1967	1968	1969. 9	누계
현대	2,405	4,966	6,481	760	14,612
대림	805	138	311	547	1,801
공영	1,902	1,024	822	750	3,688
삼환	111	1,181	693	643	2,628
한양	0	638	1,238	1,407	3,283
기타	40	886	1,166	702	2,879

* 출처: 중앙정보부(1970, 72).

〈표 22〉 현대건설의 베트남에서의 주요 사업실적

(단위: 천불)

	기간	금액
준설공사 1	1966-70	9,143
	1967-69	3,758
평화마을 건설	1967-68	4,701
기타	1967-68	235
계		17,838

* 출처: 현대건설, 2집 (1982, 614).

베트남에서의 공사경험을 바탕으로 현대는 한국정부의 보호 하에 고도의 군사시설 건설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전수 받아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건설업체로 성장했다. 현대건설은 1990년대 중반 현재 세계 5대 건설업체로까지 성장했는데, 그 배경에는 베트남전에서 미군으로부터 습득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경험이 큰 역할을 하였다. 첫째, 미군 시설공사에 응찰하는 방법; 둘째, 미국 연방정부의 건설규정 등 서구식 공법과 기준의 숙지를 통한 기술력의 향상; 셋째, 건설회사 운영의 효율적 운영방법; 넷째, 전쟁기간 중 생긴 중고 건설장비의 정비와 사용법 등을 전수 받았다(Amsden 1989, 232).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대는 베트남의 건설특수 이후, 태국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호주의 대형 항만 준설공사, 알라스카의 교량건설, 괌의 대형 주택단지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성장했다. 그후 현대는 중동의 건설 시장에 진출 1974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건설업체가 중동지역으로부터 올린 수입 2백 20억 달러 중 60억 달러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정부의 실적위주 특혜방침(performance-based incentives)에 힘입은 현대 그룹은 중공업 위주의 업종 다각화를 시도, 국내 최대의 재벌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비호 하에 투자 위험도가 높은 산업분야에 과감히 뛰어든 현대는 정부로부터 절대적 특혜를 받았다. 이를 배경으로 1968년 현대는 자동차산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현대는 한국정부가 파병을 대가로 확보한 3백만 달러의 상업차관으로 현대시멘트를 설립, 1970년대 초반에 국내 최대의 시멘트 회사로 성장시켰다.²³⁾ 또한 1973년 현대건설 소속이었던 조선업 부문을 독립시켜 현대중공업을 설립, 1980년대 중반 유럽 및 일본의 조선회사를 물리치고 세계최고의 조선회사로 발돋움하게 된다.

1945년 창사 이래 1965년까지 한진은 소규모 운송 및 수송전문업체였다. 그러나 1965년 창업주 조중훈이 베트남에 육해상 운송 전문회사를 설립, 1966년 3월 베트남에서 첫 운송사업 계약을 따낸 뒤로 한진은 베트남전에서 주로 미군의 귀논지역 중심의 전투수행을 지원하는 수송관련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23) Memo, M. Bundy to the President, "Subject: Hyundai Cement Plant Expansion--Amount of Loan: \$3,000,000," December 21 1965, NSF., Files of M. Bundy, Non-Committee Memo, Box 15, LBJ Library.

한진은 1966년 한 해동안 미국 및 일본회사의 하청업체로는 최고 매출액인 천 5백 8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려 200만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기 시작했다.²⁴⁾

한미 양국의 행정적, 법적 지원에 힘입어 한진은 한국업체로는 유일하게 군 수물자의 해상수송계약을 독점하여 1966~1970기간중 천 4백 50만 달러의 계약 실적을 올렸으며, 조중훈은 1968년부터 1971년까지 국내 최고의 소득세 납부자가 되었다 (박동순 1972, 101).

〈표 23〉 한진이 베트남에서 수주한 해상운송 계약실적, 1966-70

(단위: 백만달러)

1966	1967	1968	1969	1970	계
3.0	3.0	3.0	3.0	1.5	14.5

* 출처: U.S. Congress (1975, 1545)

베트남에서 이룬 한진의 사업실적을 높이 산 한국정부는 한진이 국내 항공 및 해상운송시장의 사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며, 미국정부에게 한미노선 및 아시아지역 내에서 민간항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²⁵⁾ 대규모의 한국군 3차 파병이 간절했던 미국은 긴밀한 내부협의를 거쳐 1968년 1월 존슨 대통령이 한국 민간항공사 설립지원 건의안에 사인을 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실질적인 민간항공업체가 등장하게 된다.²⁶⁾ 국제항공법 상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정부가 형식상 소유하고 있던 이 항공회사는 1969년 한진 측에 공식인수되었다. 이에 따라 한진은 기존의 베트남전을 위한 육해상 운송망에 항공 운송망까지 보유하게 되어 명실공히 아시아 굴지의 운송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대한항공은 현재 세계 10위 권의 민간항공회사

24) U.S. Civil Aeronautics Board, "Permit Application: Hanjin Transportation Co, Ltd., Air Korea," July 17 1967, White House Central File, EX CA 7/K, Box 13, LBJ Library.

25) U.S. Civil Aeronautics Board, "Opinion," November 14 1967, White House Central File, op.cit.

26) U.S. Civil Aeronautics Board, "Application of Hanjin Transportation Co., Ltd., for a foreign air carrier permit pursuant to section 402 of the Federal Aviation Act of 1958," January 24 1968, ibid.

로 성장하였다. 베트남전 이후 정부의 특혜에 힘입어 한진은 현재 항공, 해상운송, 관광, 보험 및 증권, 건설회사 등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국내 10대 기업의 하나가 되었다.

한편, 1967년 단돈 몇 만원의 자본으로 설립 된 대우는 1967년 이후 미국이 베트남특수 정책에 "Buy American"정책을 적용하면서 한국정부가 수출품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군복 등의 섬유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급성장 했다. 1967년도에 단지 58만 달러의 대 베트남 수출실적을 올렸던 대우는 1969년에 매출액이 400만 달러로 증가했는데, 미국 측으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평가받아 미국 내수시장을 향한 수출을 시작했다 (Steers 외 1989, 64). 이러한 성장가도를 달린 대우는 1975년 국내 기업 중 투자대비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Roy 1985, 63-65).

대 베트남 수출실적으로 베트남 재벌의 대열에 낀 대우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토대로 사업기반을 확장하면서 부실기업들을 저가에 인수하는 특혜를 누렸다. 신진 자동차, 옥포 조선소 등의 기업을 인수, 합병한 대우는 1990년대 중반에는 국내 4대기업 중의 하나로 성장했으나, 최근 그룹 내의 유동성 위기로 채권단 관리 체제 하에 있다.

4. 베트남 무역과 대일 무역구조의 왜곡

한국의 베트남특수를 향한 공격적인 수출정책의 이면에는 '대외 무역구조의 왜곡'이라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특히 참전 직후 생산기반이 없던 중공업 제품 수출량의 증가는 '자주경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했다 (Watanabe 1978, 385). 한국의 산업구조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반 가공품의 완전가공을 위한 중간 연습장(workshop)화 할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다.

일본은 196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작했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아시아에서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었다. 이 시점에 한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함과 동시에 외교정상화를 통해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경제적 침투의 위험을 더욱 고조시켰다.²⁷⁾

전쟁이 점차 확산되면서 베트남특수로 활황을 이루던 미국 산업계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자, 미국은 많은 전쟁물자를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들로부터 조달하기 시작했다. 자립적인 산업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일본으로부터 원자재 및 반가공품들을 수입, 단순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역내 무역 구조 속에서 일본이 얻은 간접이익은 대 베트남직접수출로 인해 발생한 수익보다 훨씬 많다.

〈표 24〉 베트남전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이득, 1965-67

(단위: 백만달러)

	1965	1966	1967	계
직접이익	55.0	161.0	218.8	434.8
간접이익	240.9	689.7	833.8	1,764.4
8계	295.9	850.7	1,052.6	2,199.2

* 출처: Shraishi(1990, 32)에서 재인용.

〈표 25〉 지역별로 본 일본의 무역수지, 1964-69

(단위: 백만달러)

	동아시아 8개국*	서아시아	서유럽	북미	남미
1964	566.4	689	49	-707	-220
1965	737.5	-788	359	-29	-219
1966	1191.6	-872	427	116	-225
1967	1457.4	-1163	-359	-56	-221
1968	1988.3	-1318	375	246	-219
1969	2564.7	-1372	571	679	-218
계	8505.9	-6202	1422	249	-1322

*는 한국,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오키나와, 싱가포르, 베트남

**출처: Clark(1986, 32)에서 재인용.

27) 외교정상화를 둘러싸고 한국이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용인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제시된 바 없으나, 자금이 부족했던 '혁명정부'는 일본의 6개 기업으로부터 1961-65기간의 집권당 운용비용 명목으로 약 660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1990년 개봉된 미국 CIA 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CIA, "Special Report: The Future of Korean-Japanese Relations," Secret, March 19 1966, NSF., Korea, Box 251, LBJ Library 참조

〈표 25〉는 1964-69년 기간 일본의 수출지향성과 무역수지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최대 수출 대상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의 측면에서는 베트남전으로 인해 갑자기 부상한 아시아권역 내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큰 이익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외교정상화와 더불어 활성화된 양국의 무역활동에 힘입어 대일 무역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베트남전 특수로 한국이 산업 원자재 및 반가공품의 수입을 확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전 초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제품, 화학비료, 기계류 등의 반가공품들로 국내 생산기반이 전혀 없던 품목들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공급자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CIA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품목들은 일본정부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한일기업 단체간의 합의하에 품목별로 일본의 침투가 가능했다. 일본이 위와 같은 품목들을 위주로 한국에 공급한 이유는 바로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본 내에서는 공해산업생산품목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상승하는 공해방지비용에 대한 투자를 일본기업들이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⁸⁾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일개 제품의 생산량 증가는 관련 부속 생산품들의 생산량 증가를 동반한다. 예를 들면, 기계류의 수출을 위한 생산 증가는 철판, 강재 등의 원자재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만약 수출 주문의 폭주로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입을 통한 공급량의 보완도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생산과 수입은 수출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절대구성요소이다. 한국의 대 베트남수출을 위해 공급되었던 원자재의 대부분이 국내생산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양부문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65~1967 기간 한국의 중화학공업생산품 중심의 대 베트남수출은 외환보유고의 증가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이 수입은 단지 총매출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였으므로 총수입의 많은 부분이 원자재수입으로 발생한 지불로 상계(商界)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대통령 비서실 산하의 ‘한국 파견팀’(Presidential Task Force)의 한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28) CIA, op.cit.

... 높은 원자재의 수입가 때문에 한국이 실제로 철강류 수출을 통해 얻은 이익은 미미하다. 또한 이런 현상은 우리(미국)가 90/10(미국-90%/미국외-10%)규정을 베트남시장에 적용할 경우 더 심화되리라 믿어진다. 미미한 수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계속 이러한 수출정책을 견지하려는 것은 단지 표면상의 수출총액 극대화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29)

〈표 26〉 한미·한일 무역수지의 비교, 1962-73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일본	미국	일본	미국
1962	24(43.6)	12(21.8)	109(25.8)	220(52.1)
1963	25(28.7)	24(27.5)	159(28.4)	284(50.7)
1964	38(31.9)	35(39.4)	110(27.2)	202(50.0)
1965	44(25.1)	62(35.2)	167(35.9)	182(39.3)
누계	131(32.3)	133(28.5)	545(29.3)	888(48.0)
1966	66(26.5)	96(38.3)	294(41.0)	254(35.4)
1967	85(26.5)	138(42.9)	443(44.5)	305(30.6)
1968	100(22.2)	237(51.7)	624(42.7)	449(30.7)
1969	133(21.7)	315(50.2)	753(41.3)	530(29.1)
1970	234(28.3)	395(47.3)	809(40.8)	585(29.5)
1971	262(24.6)	532(49.8)	954(39.8)	678(28.3)
1972	408(25.1)	759(46.7)	1,031(40.9)	647(25.7)
누계	1,288(24.7)	2,472(46.7)	4,908(41.6)	3,448(29.9)

* ()안의 숫자는 전체수출량 대비 비율

** 출처: 한국은행

일본이 한국의 베트남수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원자재 공급자였는지는 한일 양국간의 상호에 대한 무역비중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69년까지 한국 수출의 절대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일 수출은 일본 총수입의 1%

29) Embtel 4805(Seoul), "Country Team Message: Steel Exports to Vietnam," 12 March 1967, NSF, Asia and the Pacific, Korea: PM Chung Il Kwon Visit Papers, Box 256, LBJ Library.

에도 못 미치지만, 일본의 대 한국 수출은 1965년의 1.9%에서 계속 상승하여 전쟁말기인 1972년까지 평균 4%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IV. 결론

2차 베트남 전쟁 기간 10년간, 한국정부는 베트남전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특수한 성격에 편승하여 전쟁 주도국인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 군사적 이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이 얻어낸 파병의 대가에 있어서, 1950년대 말 미국에 의해 담보된 전략핵의 배치로(최동주 1996), 군사적 측면에서의 이득은 파병의 직접적인 이득으로만 볼 수 없는 반면, 파병의 경제적 대가는 모든 파병협상에서 상세히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협상테이블에서 항상 유리한 입장에 있던 박정희 정부가 얻어낸 경제적 대가는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던 한국경제의 산업화 과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금·부정부양면의 경제적 영향은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이 종전으로 치닫던 1970년 미국의 제임스 풀브라이트(James Fullbright) 상원의원은 「사이밍톤 청문회」에서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보다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참여했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1966년 3월 4일에 합의된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는 한국군 참전수당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브라운 각서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지원은 연이은 파병협상과 북한의 물리적 도발을 둘러싼 한미양국의 대응과정의 갈등 상황 등을 이용한 한국정부의 ‘철군 논의’를 포함한 용의주도한 요구에 미국이 부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무역/비무역 부문의 경제적 이득으로 얻어낸 외화는 약 10억 달러에 달했고, 외화가 절실했던 한국정부에게 이 ‘베트남 달러’는 경제성장의 초석을 제공했다.

한편 5억 2천만 달러 상당의 파병관련 공공차관의 확보는 국내 사회간접자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고, 2억 4천만 달러 상당의 파병관련 상업차관은 1970년대 한국 수출산업의 중심이 된 중화학공업 부문의 설비투자에 집중적으로 활

용되었다. 또한 PL-480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파병의 대가로 한국에 제공된 목화는 약 1억 7천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섬유류 수출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의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과는 상반되게 대내외 경제문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다. 베트남 삼각무역으로 인해 대일 무역구조가 심하게 왜곡되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은 것은 단기적인 양적 성장에 급급했던 당시 박정희 정부의 신중상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재벌의 등장과 정부특혜에 힘입은 이들의 무차별한 다각화 전략은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뿐 아니라 사회계층구조의 왜곡을 창출하는 성장위주 개발지향형 국가경제의 전형적인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시급했던 외환보유고 확충과 차관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시설투자자금 확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대외무역 구조의 왜곡과 베트남 재벌의 등장과 무차별 지원을 통한 국내 경제구조의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참고문헌

경제기획원. 『경제지표』

국사편찬위원회. 1975. 『과월 한국군전사』 20집.

최동주. 1996.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동기에 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9집 267-287.

박동순. 1972. “월남재벌의 호사다마.” 『월간중앙』 (12).

상공회의소. 1969. 『월남휴전과 한국경제』

_____. 1968. 『대월남 경제정책건의』

아산사회복지재단. 1988. 『한국의 해외취업』

재무부·산업은행. 1993. 『한국외자도입 30년사』

조동성. 1990. 『한국재벌연구』.

주월한국군 사령부. 1974. 『월남전 종합연구』.

중앙정보부 동남아연구반. 1970. 『기본정보: 월남 경제상황』

한국은행. 『연간 통계』

현대건설. 1982. 『현대건설 30년사』 2집.

Amsden, Alice.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achi, Amiya Kumar. 2000. "The Past and the Future of the Developmental State". *Journal of World Systems Research* 4(2): 398-442.

Bissell, R.E. 1978. "Soviet Use of Proxies in the Third World: The Case of Yemen." *Soviet Studies* 30(1) 87-106.

Cathie, John. 1989. *Food Aid and Industrialization: The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n Economy*. Aldershot: Avebury.

Choi, Dong-Ju.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s Involvement in the Second Indo-China War." Ph.D. Diss., University of London.

Clark, John A. 1986. "Japanese Foreign Policy and the War in Vietnam,

- 1964-69". Ph.D. Diss. University of Sheffield.
- Durch, William J. 1976. "The Cuban Military in Africa and the Middle East: From Algeria to Angola." *Strategic Review* (Summer), 34-74.
- Duner, Bertil. 1982. "Proxy Intervention in Civil Wars." *Journal of Peace Research* 17(4) 197-213.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68. "The Economic Effects of the Vietnamese War in East and Southeast Asia." London.
- Han, Sung-Joo. 1978.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Conflict: An Analysis of the US-Korean Relations." *Orbis* 21, no.4 (Winter), 893-912.
- Hong, Kyudok. 1991. "Unequal Partners: ROK-US Relations During the Vietnam War." Ph.D. Dis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Kim, Joung-Won. 1966. "Korea'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World Affairs* 129, no.1 (April/May/June), 28-35.
- Kim, Roy U.T. 1973. "Two Koreas and the Indochina Crisis." Gene T. Shao, ed. *The Role of External Powers in the Indochina Crisis*. 106-130.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Kim, Se-Jin. 1970. "South Korea's Involvement in Vietnam and Its Economic and Political Impact." *Asian Survey* 10, no.6 (June), 519-532.
- Krueger, Anne O. 1979. *The Developmental Role of the Foreign Sector and Aid in the South Korean Economy, 1945-75*.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Lyman, Princeton. 1970. "Korea's Involvement in Vietnam and Its Impact." *Asian Survey* 6, no.10 (June), 28-35.
- Mathisen, Trygve, 1971. *The Functions of Small States in the Strategies of the Great Powers*. Oslo: Universitetsforlaget.
- Myrdal, Gunnar, 1968. *Asian Drama*, New York: Pantheon.
- Naya, Seiji. 1971. "The Vietnam War and Some Aspects of Its Economic Impact on Asian Countries." *The Developing Economies* IX, no.1

(March).

- Rotter, Andrew. 1987. *The Path to Vietnam: Origins of the American Commitment to South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hraishi, Masaya. 1990. *Japanese Relations with Vietnam: 1951-1987*,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teers, Richard M., Yookeun Shin, and Gerardo R. Ungson. 1989. *The Chaebol: Korea's New Industrial Migh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Stubbs, Richard. 1974. "Counter Insurgency and the Economic Factor: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Prices Booms on the Malayan Economy". Occasional Paper 19. Singapore: ISEAS.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1967. *Short and Medium-Term Prospects for Exports of Manufactures from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Republic of Korea*.
- Valenta, Jiri. 1978. "The Soviet-Cuban Intervention in Angola, 1975." *Comparative Communism* XI(1-2): 3-33 (Spring/Summer).
- Vannemann, P. and M. James. 1976. "The Soviet Intervention in Angola: Intentions and Implications." *Strategic Review* (Summer), 92-103.
- Watanabe, Toshio. 1978.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Inequality in Korea." *The Developing Economies* XVI(4) December.

- Documents

- L.B. Johnson Library Documents: National Security Files, White House Central File.
- J.F. Kennedy Library Documents: National Security Files
-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1969/1970. U.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91st Congress, 1st&2nd Session. Washington D.C.: U.S.G.P.O.

_____. 1973. *Korea and the Philippines*. November 1972: Staff Report. Washington D.C.: U.S.G.P.O.

_____. 1975. *Republic of Korea*, USGPO, p.1545.

Impact of the Vietnam-Dispatch upon Korean Industrialization

Dong-Ju Choi

Throughout the Vietnam War period, Korean troop presence in Vietnam played a key role as leverage to obtain every possible economic and military gain from the U.S. Every international issue surrounding Korea was related to the Vietnam War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Korea's voice at the negotiation table with the U.S. The Vietnam War affected the entire Korean society in so many ways that everyone's life was touched at some point if only by the atmosphere it created. For some, the war presented an opportunity for private gains regardless of morality or justification; no qualms intruded upon their actions, and no nagging doubts restrained them.

The most significant result of Korea's engagement in Vietnam was to be found in the economic arena, and other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sture of the Park's administration were largely a corollary of the economic situation. Korea was able to accomplish most of what the new leaders had expected from the war largely due to the U.S. honoring of promises of economic support, which resulted from the Vietnam negotiations, although many security concessions including the military modernization of the Korean forces were not completed on schedule or were postponed until other security issues providing

leverage for Korea occurred.

In 1970 Senator James Fullbright commented during the "Symington Hearings" on the U.S. security situation overseas that Korea's involvement in Vietnam hardly seemed such a heroic gesture. Having been informed of Korea's massive earnings sanctioned by the Brown Memorandum, Fullbright was of the opinion that Korea had been prompted more by profit motives than a sense of self-sacrifice. In fact, Korea had received covert U.S. funding and military assistance in exchange for its military participation in Vietnam. By 1966 Korea's financial position as provider of troops had strengthened considerably and the Brown Memorandum of March 4 established the arrangement by which America would use Korean troops for the duration of the war. The Koreans had insisted upon the memorandum as a formal guarantee of American payment and assistance for Korean forces. Payments were channelled to the Korean in many different ways, notably through the U.S. AID and by facilitating war profiteering by Korean businessmen. The Korean economic miracle was founded upon its exports and subsidies in excess of \$1 billion. Not only did the government benefit but also businesses, contractors, soldiers and a lot of shady operators.

In addition to these benefits, largely helped by Vietnam-related public and commercial loans from the U.S., Korea was able to pave the way for the expansion of its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promote to develop target and strategic industries such as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which became a core factor of Korea's economic growth since the end of the Vietnam War. These strategic industries were led by "Vietnam-born" chaebol groups such as Daewoo, Hyundai, and Hanjin because the Korean leadership granted them favours in return for their remarkable achievement in Vietnam during the war perio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s forcible measure of export promotion to Vietnam with the commodities which Korea did not have the capacity to produce led to the reexport of Japanese semi-finished goods and culminated in the structural dependence of Korea upon imports from Japan in the coming decades and a large trade deficit.

<Key Words>

Vietnam War, Korean Economy, ROK-US Relations, Developmental State, Neo-Mercantilism